

## 『The Pilgrim's Progress』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통시적 고찰, 그리고 번역자의 가시성

최경희(평택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천로역정』은 영어권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으로(Thomas, 1964/1992), 전 세계 2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다. 17세기 영국의 설교자이자 작가 존 번연(John Bunyan)이 1678년에 출간한 기독교 고전 『The Pilgrim's Progress』가 원작이며, 국내에도 수많은 한국어 번역본이 존재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검색 결과에 따르면 19세기 말 최초의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된 이후 현재까지 수백 종의 번역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그만큼 오랜 세월 이어진 독자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은 기독교 신앙의 고취라는 목적 외에도 『The Pilgrim's Progress』가 지닌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에도 기인한다.

이에 따라 신학, 문학, 번역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천로역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로 특정 번역가나 시대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김성은, 2009; 배은진, 2014; 오승일 등, 2018; 최인숙, 2024). 1895년 첫 국문 번역본이 나오고 13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발간된 번역본의 경향이나 흐름을 보여주는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이 글에서는 그간 출간된 번역본을 큰 틀에서 정리하여 추이를 개괄하고자 하는 목적

을 가지고 있으며, 아래의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 현재까지 출간된 번역본에서 특징적인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예를 들어, 연대별 번역자, 일반/어린이/만화/현대어 번역본 통계)
- 한 작품에 대해 이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번역본이 존재하는 이유, 즉 지속적으로 새 번역이 출간된 이유는 무엇인가?
- 이처럼 많은 번역본에는 그만큼 많은 번역자가 존재할 것인데, 번역학적 관점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번역자의 가시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분석 데이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검색하여 찾은 번역본을 대상으로 하며 분석 방법으로는 검색한 결과를 수작업으로 집계한 후 파라텍스트 이론 일부를 사용하여 번역자 가시성을 분석하고자 한다(Batchelor, 2018, p. 33 참고). 이 글의 구성은 원작 『The Pilgrim's Progress』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초기 한국어 번역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그간 출간된 번역본을 개괄한다. 이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한 파라텍스트 개념을 활용하여 번역본을 비교한 후 분석 및 함의점을 찾고자 한다.

## 2. 원천 텍스트 『The Pilgrim's Progress』

『The Pilgrim's Progress』는 저자 존 번연이 영국 국교회의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 생활을 하던 중 옥중에서 쓴 우화 형식의 소설이다. 이 책이 출간되던 17세기 영국은 왕당파와 청교도 간 정치적, 종교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였다. 왕정이 복구된 후 안수받지 않고 설교한다는 이유로 12년간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초고를 쓴 것으로 보인다(정덕애, 2020, p. 449). 주인공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City of Destruction)를 떠나 온갖 역경을 딛고 마침내 천국에 도달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1678년 출간 이후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17세기 가장 사랑받는 소설이 되었다(Horner, 2009, p. 16; Keeble, 1988, p. 245). 이러한 인기에 힘

입어 원작자 존 번연의 생존 시에만 12권이 출간되었으며<sup>1)</sup> 이어 6년 뒤인 1684년에 하편이 나왔고, 상 하편 합본으로도 발간되었다(Sharrock, 1967, p. 30).<sup>2)</sup> 하편은 크리스천의 아내 크리스티애나와 일행이 남편의 뒤를 따라 천국을 향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당시 이러한 성공은 네덜란드어(1682), 불어(1685)와 같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는 등 번역본의 발간으로도 나타났으며, 이후 1789년까지만도 57권이 발행되어 존 번연 생존뿐 아니라 1688년 사망한 후에도 그 맥을 이어갔다(정덕애, 2020, p. 533). 그 이후 18세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번연의 작품은 기독교계뿐 아니라, 찰스 디킨스, 샬롯 브론테, 조지 엘리엇과 같은 문학 거장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만큼, 문학계에도 주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Pooley, 2008, p. xxxvi), 신앙적 영향력과 문학적 가치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영국 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에 소장된 자료를 보면 『The Pilgrim's Progress』로 검색된 단행본은 623종에 이르며, 존 번연 저(著)로 범위를 좁혀도 327종에 이를 만큼 많은 버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British Library, n.d.). 이들 버전은 번연의 생애와 작품세계에 대한 설명을 담은 서문의 추가 및 성경 구절과 철자 표기를 시대에 맞게 정리하기도 하고 버전에 따라 다양한 삽화와 현대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현대 독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현대화 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Pooley, 2008, p. xlii).

---

1) 두 번째 버전(1678)과 세 번째 버전(1679)에는 사심(By-Ends)의 등장을 포함하여 이전 버전에는 없었던 내용이 추가되었다(Sharrock, 1967, p. 30). 다만, 번연 생존 시 11권이 발간되었다는 의견(정덕애, 2020, p. 450)과 13권이 발간되었다는 의견도 있다(Keeble, 1988, p. 245).

2) 이 중 상편은 6권부터, 그리고 하편은 처음부터 삽화와 해당 성경구절이 포함되었다(Pooley, 2008, p. 서문 xlvi).

### 3. 한국어 첫 번역본과 새 번역본의 탄생

#### 3.1 한국어 초기 번역본

그간 국내에서도 많은 번역본이 발간되었는데, 상편과 하편 모두 번역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앞서 언급한 대로, 『The Pilgrim's Progress』의 첫 한국어 번역본은 1895년 발간되었다. 캐나다 출신 선교사 제임스 게일(James S. Gale)이 발간한 『턴로력덩』으로, 『유옥역전』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 문학으로 알려져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n.d.).<sup>3)</sup> 다만, 『턴로력덩』의 경우 내용을 간추려 번역한 초역(抄譯)으로, 본 역서의 서문에 “번력호는중에미진호숫치여간잇스나대강요긴호뜻숯불헛스니밋는이논이칙을보소서(번역하는 중에 미진한 곳이 여간 있으나 대강 요긴한 뜻을 밝혔으니 밋는 이는 이 책을 보소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게일, 1895, 서문). 또한 『턴로력덩』은 영어 원본 외에 중국어 역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성은, 2009; 오승일 등, 2018; 조정경과 최경희, 2025 참고). 1910년 재판본을 비롯하여 1926년까지 4판본이 간행되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초역본만 존재하다가, 1939년 오천영의 『천로역정』 전역본이 조선기독교서회에서 간행되었다.<sup>4)</sup> 오천영은 번역본 서문에서 그간 번역본이 “소년들의 독물이 될만한 초역(抄譯)뿐이요 전역(全譯)은 아니”라 “편이나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밝히며 우리나라 첫 전역본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오천영, 1939, 서언). 초역으로 번역된 게일의 『턴로력덩』은 또한 상편만을 번역한 것인데, 오천영은 상편을 출간하고 그로부터 15년 후인 1954년에 기문사에서 하편을 출간한다. 이로써 국내 첫 상 하편 전역본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sup>5)</sup> 더욱이 오천영 역은 영어 원본에서 직접 번역한

3) 『유옥역전』은 아라비안 나이트(Arabian Night)를 번역한 작자 미상의 번역 소설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오늘날의 대한기독교서회이다.

5) 가장 최근에 발간된 오천영의 번역본은 1994년 대한기독교서회에서 합본으로 출간된 개정 신판이다.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김동연, 1998, p. 22),<sup>6)</sup> 중역의 흔적이 있는 『턴로력덩』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천영이 하편을 간행한 해에 『The Pilgrim's Progress』의 또 다른 상 하편 전역본이 발간되었는데, 김동순 역의 『하늘 가는 길』이다.<sup>7)</sup>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 한글을 표방하고 있는 김동순 역은 『천로역정』 초기 번역본 중 하나다. 특히, 번역을 하게 된 배경으로 “한 권도 전역으로 된 것이 없”어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번역본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으며, 서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전역을 내어놓은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김동순, 1954, pp. 3, 5).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1954년 4월에 발행한 오천영 역(하권)에 비해 약 6개월 늦게 간행되었다. 다만, 머리말과 서문을 쓴 시기가 각각 3월과 2월로 오천영 역 발행 전이었다. 전역 합본으로 보면 최초로 볼 수 있다. 이리하여, 1895년 첫 번역본이 발간된 후 상권과 하권 전체를 전역으로 완성한 한국어 번역본이 마침내 탄생하게 된 것이다.

### 3.2 새 번역본 출간 이유

게일 역과 오천영 역 그리고 김동순 역 이후에도 많은 번역본이 끊임없이 출간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번역본이 나온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 중, 이 글에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본다. 『천로역정』이 지니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먼저, 『천로역정』이 지니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기독교 신앙에 국한된 신앙서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를 초월한 고전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불멸의 고전으로, 영문학사 중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는 작품”이며(원창엽, 1990, pp. 344-345), 번역의 문학은 “후세의 문학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평가다(이윤기, 1989, p. 173). 또한, 기존 번역 형태에서 벗어나 『천로역정』의 “비신학화(非神學化) 내지 비교회

6) 다만, 인명 및 지명 번역에서는 중국어본과 같은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는 중국어본에 나오는 이름을 한글로 음차한 『턴로력덩』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조경덕과 최경희, 2025).

7) 부제는 제목 아래에 작은 글씨로 ‘天路歷程’을 사용하고 있다.

화(非敎會化)”를 통한 “하나의 문학작품”을 추구하고자 하였다(이현주, 1976, p. 6). 이러한 고전 문학으로의 평가는 여러 출판사에서 고전 문학 시리즈로 『천로역정』 번역본을 다수 출간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아래 6.2.1장 참고).

두 번째로, 앞선 번역본이 출간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새 번역본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동안 출간된 번역서에 실린 추천사나 역자의 글을 살펴보면, 상당한 수의 번역본이 나와 있지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새 언어로 번역될 필요”가 있음을 출간 이유로 들고 있다(정성목, 2019, p. 5). 이렇게 함으로써, 『천로역정』과 같은 귀중한 신앙 유산을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세대에게 임히려는” 것이 목적인데(최중훈, 2011, p. 372), 이는 “독자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선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유성덕, 1987, p. 11). 새 시대에 맞는 새 번역의 출간은 21세기 들어 현대어나 쉬운 번역의 출간 건수가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아래 6.1.1장 참고).

#### 4. 파라텍스트 기본 개념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방법론의 일부로 파라텍스트 개념을 활용한다. 다만, 파라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깊이 다루기보다 필요한 대로 기본 개념만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다수의 번역본의 흐름을 개관하는 데 글의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파라텍스트 개념을 활용한 다양한 적용 방안 중에 『천로역정』을 번역한 번역자의 역할 즉, 번역자의 가시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번역자 가시성에 대한 부분은 다수의 『천로역정』 번역자와 번역본에 있어서 이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되었으며 번역자의 가시성을 알아볼 수 있는 방편으로 파라텍스트 개념을 활용한다. 파라텍스트 개념을 활용한 번역자 가시성에 대한 연구는 이미 번역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Batchelor, 2018, p. 33), 보다 자세한 내용은 4.2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1 쥘레트의 파라텍스트

파라텍스트(paratext)는 프랑스의 문학 이론가 제라드 쥘레트(Gérard Genette)가 자신의 저서 『Seuils』(영어로 Thresholds를 의미)에서 주창한 개념이다. 파라(para-)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 옆(beside), 나란히(side by side), 보조적(auxiliary)이라는 의미로(Dictionary Media Group), (문학 작품을 비롯한) 텍스트를 둘러싸거나(surround) 텍스트를 확장하여(extend) 세상에 그 존재를 소개하고 책 (등)의 형태로 수용 및 소비되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생산물(productions)을 일컫는다(Genette, 1997, p. 1). 파라텍스트를 통해 텍스트가 책의 형태를 갖추고 독자와 대중에게 제공된다. 특히, 책 제목(threshold)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파라텍스트는 독자가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느냐 텍스트 밖으로 나가느냐를 결정하는 불확정적인 지대(undefined zone), 즉 경계(thresholds)로 보았다(Genette, 1987/1997, p. 2). 국내 번역학계에서는 파라텍스트를 주로 ‘결텍스트’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쥘레트가 의도한 이러한 의미를 모두 담기 어렵고 결텍스트라는 말이 아직 학계에 하나로 통일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이 글에서는 원어 그대로 파라텍스트를 사용한다.

파라텍스트를 대하는 접근방식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간적(spatial), 시간적(temporal), 본성적(substantial), 화용론적(pragmatic) 및 기능적(functional) 특성이 그것이다. 먼저, 공간적 특성은 책 서문과 같이 텍스트 주변에 존재하는 요소인 페리텍스트(peritext)와 인터뷰 등 텍스트 밖에 존재하는 에피텍스트(epitext)로 나뉜다. 시간적 특성은 텍스트가 출판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성적 특성은 파라텍스트가 언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가를 둘러싼 맥락(나이, 직업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다. 화용론적 특성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아우르는 의사소통 상황으로 정의되며, 마지막으로 기능적 특성은 결국 파라텍스트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위해 존재하는 보조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파라텍스트의 다섯 가지 특성(Genette, 1997)<sup>8)</sup>

특성	하위분류	내용
공간적	페리텍스트	책 제목, 서문과 같이 텍스트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요소
	에피텍스트	인터뷰, 대화내용, 편지와 같이 텍스트 바깥 원거리에 존재하는 요소
시간적		텍스트가 출판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특성. 예를 들면, 첫 출판 때 생산되는 파라텍스트와 그 이전 및 이후에 생산되는 파라텍스트로 분류할 수 있다
본성적		파라텍스트가 언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삽화, 인쇄용 조판의 선택과 같은 요소나 작가를 둘러싼 맥락(나이, 직업, 성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 이들 요소는 모두 작품을 읽는 데 영향을 미친다
화용론적	발신자	저자와 편집자로 텍스트와 파라텍스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담당하는 당사자. 때에 따라 제삼자 서문이 존재하기도 하며, 인터뷰 기사와 같이 책임을 분담하는 경우도 있다
	수신자	일반대중(책 제목이나 인터뷰)과 독자(서문), 공적 텍스트 대 사적 텍스트 등
	[...]	
기능적		파라텍스트는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종속되어 텍스트를 위해 존재하는 타율적이며 보조적 요소라는 것. 이러한 기능성이 파라텍스트의 존재의 핵심이며 이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 4.2 번역학에서의 파라텍스트에 대한 논의

번역학에서도 파라텍스트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Batchelor(2018)에 따르면 1987년 『Seuils』 발간 이후, 특히 2000년대부터 번역과 파라텍스트를 연계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번역을 파라텍스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제네트의 제안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번역을 그 자체로 텍스트로 보고 그에 따른 파라텍스트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발행인이나 제삼자 외에 제네트의 분류에 번역자를 추가하자는 의견(Deane-Cox, 2014, p. 29)과, 저자나

8) Genette(1997) 1장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대필이 아닌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Batchelor, 2018, p. 30-33). 연구 주제 분야별로는 번역학이 학문으로 발전하면서 번역 이론 문집을 구축하기 위한 사료로 파라텍스트를 활용하거나, 번역자의 가시성(visibility)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또는 번역의 사회문화적 맥락 및 젠더 이슈 등 다양한 하위분야에 파라텍스트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번역자의 가시성과 관련하여, 번역자의 존재는 번역된 텍스트와 파라텍스트를 통해 번역 전략이나 자신의 아젠다(숨은 의도)를 드러내기도 하고(2018, p. 32), 책 출판 과정에서 번역자 서문이나 번역 후기를 포함시키는 것과 같이 번역자 역할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2018, p. 33).

국내 번역학계에서는 2010년 전후부터 파라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다수의 연구가 공간적 특성, 특히 페리텍스트에 집중되었다(예를 들어, 통시적 고찰: 김민서와 김순영, 2019; 박윤후와 이상빈, 2023; 이혜승, 2014; 역자 후기: 김영신, 2012; 전현주, 2009; 기타: 김순영, 2019; 이강선, 2016). 에피텍스트를 중심으로 하거나 파라텍스트의 두 가지 요소를 아우르는 연구는 많지 않다(김순미, 2013; 유한내, 2013는 예외). 그 밖에 문자 텍스트가 아닌 시각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도 드물게 존재한다(이선우, 2023). 이 과정에서 분석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 ST와 TT의 파라텍스트를 분석하거나(김민서와 김순영, 2019), 번역 텍스트와 비번역 텍스트를 비교하거나(마승혜, 2019) 상이한 언어문화적 차이의 비교(이지영, 2016)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 박선희(2015)는 파라텍스트의 개념정의에 중점을 둔 연구를 수행했는데, 쥘네트의 파라텍스트 개념을 번역에 확장했다. 발행인이나 제삼자 이외에 번역자를 추가하자는 Deane-Cox(2014)의 견해와 맥을 같이하는 연구로, 쥘네트의 파라텍스트의 다섯 가지 특성 중 공간적 특성과 화용론적 특성에 중점을 두어 원천 텍스트 파라텍스트에 번역 및 번역자 개념을 추가하였다. 먼저, 공간적 특성은 다섯 가지 특성 중 가장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화용론적 특성은 다른 네 가지 특성이 달라지지 않는 반면에 원천 텍스트와 번역문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라고 보았다(2015, p. 14). 화용론적 특성에서 특히 발신자의 경우 원천 텍스트에서는 저자, 편집자, 제삼자만 존재하지만 번역문에서는 이 셋에 번역자가 추가되었다. 번역문 주변

텍스트의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다(2015, p. 26).

- 저자 주변텍스트: 저자명, 제목, 부제, 헌사, 주석, 저자 서문 등
- 편집자 주변텍스트: 판형, 등장인물 소개, 삽화, 사진, 표지/속표지 디자인, 표지/속표지 문구, 편집자 서문, 편집위원 명단, 시리즈명, 일러두기 등
- 번역자 주변텍스트: 번역자명, 작품 해설, 작가 연보, 번역자 헌사, 역주, 역자 서문(후기), 번역자 약력 등
- 제삼자 주변텍스트: 추천 서문, 추천문구, 작품 해설, 작가 연보 등

박선희(2015)의 분류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편집자 주변텍스트(페리텍스트)는 원천 텍스트의 편집자가 아닌 번역서의 편집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번역자 주변텍스트의 추가 외에도, 쥬네트의 분류와 차이가 나는 또 다른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제삼자 주변텍스트 역시 일부 또는 전체가 번역서에 대한 제삼자 주변텍스트를 의미할 것이다. 이에 따라 쥬네트의 페리텍스트 분류와 박선희의 분류는 원천 텍스트 저자만 제외하고 대부분 달라져 페리텍스트가 상당히 변모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박선희의 분류에서는 저자와 번역자 그리고 제삼자 이외에도 편집자 서문이 추가되어 다양한 서문 형태가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쥬네트의 분류에 없는 작품 해설이나 작가 연보도 추가하고 있다. 다만, 그 주체를 번역자와 제삼자만 들고 있는데 『천로역정』 번역본의 경우 편집자 페리텍스트로서의 작품 해설이나 작가 연보도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 5. 데이터와 분석 방법

### 5.1 데이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에 사용된 데이터는 그간 출간된 『천로역정』 번역본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363종을 대상으로 한다(국립중

양도서관, n.d.). 이 중에서 변연의 『천로역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동일 종을 2권 이상 구비하여 겹치는 항목을 제외하면 총 175종이 남는다. 성인 대상 번역본이 111종이고 아동 대상이 64종이다. 만화를 포함한 아동 대상 번역본은 연대별 발간 횟수 등 기본적인 통계 집계 후 본격적인 분석에서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동 대상 번역본을 분석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원작의 내용이 상당히 축소되었거나 단순화되어 성인 대상 번역본과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동 대상 번역본을 제외한 성인 대상 번역본 총 111종은 초기 한국어 번역에 해당하는 게일 역(1895)과 오천영 역(1939) 및 김동순 역(1954)을 비롯하여 이후 2024년까지 130년에 걸쳐 48명의 번역자가 번역한 텍스트이다. 이들 번역자별 첫 번째 『천로역정』 번역본에 해당하는 48종의 번역본에 파라텍스트 이론을 적용하여 발신자로서의 번역자 페리텍스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번역자별 첫 번역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저자별로 발간 횟수가 다수일 경우에도 각각의 발간물이 별개의 대상으로 분석할 만큼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한 번역본이 초판, 재판, 3판이 출간되었지만 파라텍스트 측면에서 볼 때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의미이다.

## 5.2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국립중앙도서관 검색창에서 ‘천로역정’을 키워드로 입력하여 얻은 결과물에서 단행본으로 범위를 좁혀 358종의 번역서 목록을 엑셀파일로 내려 받았다. 그리고 ‘존 변연’ 및 ‘John Bunyan’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얻은 도서 4종(게일 역 3종과 김동순 역 1종)을 추가하여 총 363종이 되었다.<sup>9)</sup> 여기에 원천 텍스트가 존 변연의 저작이 아니거나 존 변연과 관련이 없는 도서 및 동일한 해에 동일한 출판사에서 발간한 번역본은 이중으로 계수되지 않도록 목록에서 제외시키고 175종이 남았다. 성인용이 111종(성인 일반 95종, 성인 현대어 16종)이고 아동용은 64종이다(산문 50종, 만화 14

9) 게일 역의 경우 1919년에 발간된 3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으나 타 기관에 소장되어 있음을 논문 제출 얼마 전에 인지하게 되어 이 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1920년 발간된 언더우드 여사(H. G. Underwood)의 『턴로력정 2편 기독교부인 려행록』도 같은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sup>10)</sup>

번역자 페리텍스트 분석 대상으로 구분한 성인 대상 번역본 48종은 일반 번역본 39종과 현대어 번역본 9종이다. 현대어 번역본은 일반 번역본에 비해 대체로 쉽게 읽힐 뿐 아니라 책 제목에 ‘읽기 쉬운’, ‘쉽게 읽는’, ‘현대인의’, ‘현대인을 위한’과 같은 표현이 추가되어 있다.<sup>11)</sup> 현대어 번역본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사실상 현대어 번역본과 일반 번역본의 구분이 모호한 지점이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작에 가까운 일부 번역본도 있지만 그 수가 2종으로 적고(마영례, 2004; 배응준, 2007) 내용도 존번역의 원천 텍스트에 근간을 두고 있어 데이터에 포함시켰다. 현대어 번역본은 2000년대 들어 전체 번역본 대비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최근 번역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6.1.1장 참고).

과라텍스트 개념을 이용한 분석은 과라텍스트의 다섯 가지 접근방식 중 공간적 특성, 그 중에서도 페리텍스트와 화용론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본성적 특성은 일부(직업)만 다를 예정이다. 화용론적 특성에서는 텍스트의 발신자인 원작 저자, 출판사, 번역자, 제삼자의 역할, 특히 앞에서 언급한 대로, 번역학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번역자의 역할(번역자의 가시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박선희(2015)의 ‘번역문의 주변텍스트’에 제시된 항목(저자 서문, 삽화, 번역자 약력, 역자 서문, 추천 문구 등)을 참고하여 48종의 번역본을 비교 분석한다.

10) 목록 중 상편과 하편으로 별도의 간행물로 출간한 경우에는 각각 1종으로 처리했다.

11) 현대어 번역본으로 분류된 9종 중에서 배응준 역(2007)과 최종훈 역(2011)은 영어 원천 텍스트를 현대어판으로 새롭게 편집된 것을 번역한 것이다.

## 6. 분석 결과

### 6.1 기본 통계: 통시적 관점

#### 6.1.1 연대별 번역본 출간 동향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시대별 번역본 출간 횟수는 1890년대에 처음 출간된 후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다. 전체 번역본의 추이를 보면, 1970년대 13종이던 것이 1980년대에는 31종으로 그 수가 대폭 늘었고, 2000년대에 39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그 수가 크게 줄지는 않았다. 175종의 번역본 중 성인 대상 번역본의 경우 가장 많은 번역본이 출간된 시기는 1980년대로, 현대어 번역본 1종을 포함하여 22종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한다. 이후 소폭 감소했으나 2010년대에 다시 22종이 출간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번역본 출간 횟수 특히, 성인 대상 번역본의 출간 횟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표 2  
연대별 번역본 출간 횟수: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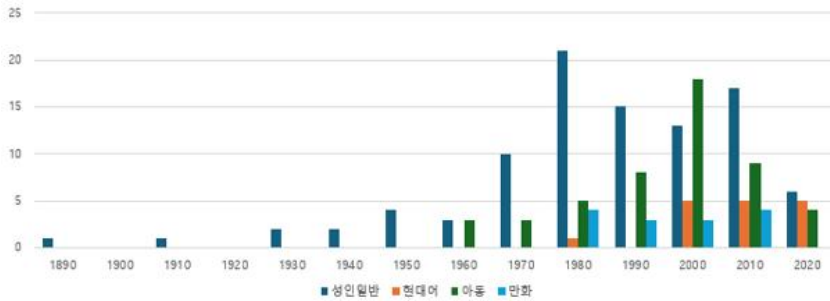
	1890	190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일반	1		1		2	2	4	3	10	21	15	13	17	6
현대										1		5	5	5
소계	1		1		2	2	4	3	10	22	15	18	22	11
아동								3	3	5	8	18	9	4
만화										4	3	3	4	
소계								3	3	9	11	21	13	4
<b>총계</b>	<b>1</b>		<b>1</b>		<b>2</b>	<b>2</b>	<b>4</b>	<b>6</b>	<b>13</b>	<b>31</b>	<b>26</b>	<b>39</b>	<b>35</b>	<b>15</b>

만화를 포함한 아동 대상 번역본은 1960년대 처음 출간된 이래 2000년대에 크게 증가했으며(21종, 43.7%) 이후 감소하여 1980~1990년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에 아동 대상 번역본이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논술을 대비한 고전 문학 작품으로의 활용도와, 2000년대 현대어 번역본의 등장

과 맞물려 청소년을 위한 쉬운 번역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김숙희, 2004; 김충남, 2009).

그래프로 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연대별 번역본 출간 횟수: 전체



### 6.1.2 번역자별 첫 번역

<표 3>에서는 번역자의 첫 번역 92종만 따로 모아 연대별로 번역 추이를 보았다. 성인 대상 일반 번역의 경우 전체 번역본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 가장 많은 첫 번역본(현대어 번역본을 포함하여 11종)이 출간되었고 이후 소폭 줄었다. 2000년대에는 일반번역 4종과 같은 수의 현대어 번역본이 새로 출간되었으며 2020년대 들어서도 같은 비율을 유지하는 등 현대어 번역본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이들 48종의 성인 대상 번역본은 아래에서 파라텍스트 이론을 적용한 분석 대상이다. 아동 대상 번역본도 그간 출간된 전체 번역본과 추이(<표 2>)와 상당히 유사하다.

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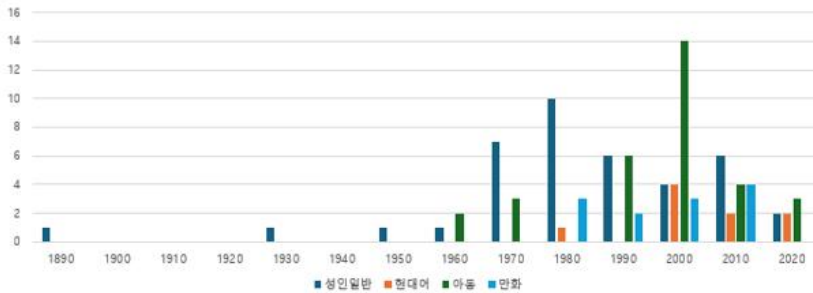
연대별 번역본 출간 횟수: 번역자별 첫 번역

	1890	190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일반	1				1		1	1	7	10	6	4	6	2
현대										1		4	2	2
소계	1				1		1	1	7	11	6	8	8	4
아동								2	3		6	14	4	3
만화										3	2	3	4	
소계							2	3	3	3	8	17	8	3
총계	1				1		1	3	10	14	14	25	16	7

그래프로 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연대별 번역본 출간 횟수: 번역자별 첫 번역



## 6.2 번역 텍스트의 페리텍스트

### 6.2.1 본성적 특성: 직업과 몇 가지 특이 사항

이 장에서는 본성적 특성에 해당하는 번역자의 직업 외에, 문학 작품으로서의 번역본 출간과 책 제목의 번역<sup>12)</sup>과 같은 기타 특이 사항도 알아본

12) 쥘레트의 화용론적 특성(발신자)에 따르면, 제목은 저자 페리텍스트로 분류되지만 박선희(2015)에서는 제목의 번역을 어느 곳으로도 분류하지 않고 있다. 또한 『Pilgrim's Progress』의 제목 번역이 비교적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이어서

다.

### 직업

번역자의 직업은 번역서에 소개된 번역자 약력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다만, 게일 역(1895), 오천영 역(1939), 김동순 역(1954), 이윤기 역(1989)에는 저자 정보가 나오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직업 정보에 포함시켰다. 직업이 두 개 이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전일제 직업으로 집계했다. 예를 들어, 교수이자 작가라고 하면 해당 번역자의 직업을 교수로 집계했다. 총 48명의 번역자 중에서 사역자(목사, 선교사 등)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교수를 포함한 교육자가 9명, 정보가 없는 경우가 10명, 전문 번역가 7명, 작가 4명, 기타 4명(기관<sup>13</sup>, 공무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번역자 약력이 페리텍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총 10명으로 전체 약 20%를 차지한다는 점이다(게일, 오천영, 이윤기 등을 포함하면 그 수가 늘어난다). 이 중 7종 (70%)이 1980년대까지 출간된 번역본으로, 이 시기까지는 번역자 약력이 포함된 경우가 적고 그에 따라 번역자 가시성도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문학 고전으로 출간된 번역본

다양한 출판사에서 1960년대부터 문학 고전 시리즈의 일부로 번역서를 출간하기 시작했다. 전체 48종의 성인 대상 번역본 중 16종(33%)이 문학 작품으로 출간되었다. 연대별로 보면 1970년대가 5종으로 가장 많고<sup>14</sup> 1980년대가 3종으로 그 뒤를 잇는다. 특히 1970년대는 그 비중이 전체의 71.4%에 이른다. 이는 국내 번역 문학 전반이 1970년대에 절정에 이르렀고 1980년대까지 이어진 상황과 맞물린다고 할 수 있겠다(김병철, 1998, p. 763).

이곳에서 다룬다.

- 13) 기관의 경우는 2종으로(시사영어사와 한국학문헌연구소 출간), 번역자 약력이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편이상 기타 항목으로 구분했다.
- 14) 이 시기에 출간된 번역본의 특징 중 세로쓰기가 많이 보인다. 첫 번역만 비교해 보면 1970년대 출간된 번역본 11종 중 세로쓰기로 된 번역은 8종에 달한다. 이후 1980년대 출간된 번역본부터는 모두 가로쓰기로 바뀌었다.

## 제목

제목 번역은 윌리엄 번스(William C. Burns)의 한역본 『天路歷程』(1853)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된 게일 역의 『턴로력딩』(1895)이 발간된 이후(오승일 등, 2018, p. 342; 조정덕과 최경희, 2025, p. 89), 대부분의 번역본에서 ‘천로역정’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김동순 역(1954년)에서만 예외적으로 ‘하늘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사용했다. 또한 현대어 번역본도 ‘천로역정’을 제목으로 채택했는데 다만 이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로역정’ 앞에 ‘쉽게 읽는’, ‘현대인의’, ‘리마커블’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일본어 번역도 ‘天路歷程’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목 번역은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3국(중국, 한국, 일본)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2.2 화용론적 특성: 발신자

화용론적 특성에서 발신자에 해당하는 원작 저자와 번역본 편집자(출판사), 번역자, 번역본 제삼자 페리텍스트를 살펴보았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작 저자 페리텍스트의 하위 분류에는 ‘서문’을 포함시켰고, 출판사 페리텍스트 하위 분류는 ‘삽화’, ‘성구’, ‘해설’, ‘저본 제시’를,<sup>15)</sup> 번역자 페리텍스트 하위 분류에는 ‘표지 역자명’, ‘번역자 약력’, ‘역자 글’, ‘번역 관련 내용’<sup>16)</sup>을, 제삼자 페리텍스트에는 ‘추천의 글 등’을 하위 분류로 두었다. 원작 저자 페리텍스트의 하위 분류 개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적은 이유는 데이터 분석의 초점이 원작이 아닌 번역본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품 해설을 번역자 주변텍스트(페리텍스트)로 분류한 박선희(2015)의 분류와 달리 편집자(출판사) 페리텍스트에 포함시킨 것은 대다수의 『천로역정』 번역본에서 출판사가 작품 해설이나 작가 연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번역자 페리텍스트에 역자 서문이나 역자 후기 등 번역자의 글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번역자의 글에 번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15) 이 네 가지 항목을 제외한 일러두기나 고전 시리즈 목록과 같은 내용은 이 글의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판사 페리텍스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6) 역자의 글에 번역 관련 내용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둘을 별개의 항목으로 구분했다.

표 4  
화용론적 특성: 발신자 페리텍스트 항목

기본 정보		저자		출판사			번역자				제삼자
번역자(연도)	출판사	서문	삽화	성구	해설	지본 제시	표지 역자명	번역자 약력	역자 글	번역 관련	추천글

아래 <표 5>부터 <표 10>까지는 연대별 발신자 페리텍스트를 조사한 결과다. 번역자 이름과 출간 연도를 파란색으로 표시한 경우는 현대어 번역본을 의미한다.

표 5  
발신자 페리텍스트: 1970년대까지

기본 정보		저자		출판사			번역자				제삼자
번역자(연도)	출판사	서문	삽화	성구	해설	지본 제시	표지 역자명	번역자 약력	역자 글	번역 관련	추천글
개일 1895	삼문출판사	O	O	X	X	X	O	X (사역자)	O	O	X
오천영 1939	조선기독교서회	O	O	O	X	X	O	X (사역자)	O	O	X
김동순 1954	은총문화협회	O	X	O	X	X	O	X	O	O	O
주요섭 1963	을유문화사	O	X	O	X	O	O	교육자	O	O	X
양병탁 1973	문우사	O	O	O	O	X	O	X	X	X	X
이성학 1975	상서각	O	X	O	O	X	O	사역자	X	X	X
이현주 1976	범우사	O	O	O	O	O	O	사역자	O	O	X
정정숙 1977	세종문화사	O	O	O	X	X	O	X	X	X	X
원창엽 1977	홍신문화사	X	O	O	X	X	O	기타	O	X	O
한기선 1978	성훈출판사	X	O	O	X	X	O	X	O	O	X
한국학문헌연구소 1979	아세아문화사	X	O	O	O	X	O	X (기타) <sup>17)</sup>	O	O	X

표 6

발신자 페리텍스트: 1980년대

기본 정보		저자	출판사				번역자				제삼자
번역자 (연도)	출판사	서문	삽화	성구	해설	지분 제시	표지 역자명	번역자 약력	역자 글	번역 관련	추천글
조성지 1984	박영사	X	X	O	X	X	O	교육자	O	X	X
최정선 1984	지성 문화사	O	O	O	O	X	O	사역자	O	O	X
정훈성 1985	성도 출판사	X	O	O	O	X	O	X	X	X	X
편집국 1986	시사 영어사	X	X	X	O	X	O	X (기타)	X	X	X
이문숙 1986	예찬사	O	O	O	O	X	O	X	O	X	O
유성덕 1987	크리스 찬다이 프레스	O	O	O	O	X	O	교육자	O	O	O
윤정 1987	배제 서관	X	X	O	X	X	O	사역자	O	O	X
송운하 1988	청한	O	O	O	O	X	O	X	X	X	X
김재 1989	두풍	X	X	O	X	X	O	작가	O	X	X
이상현 1989	청목	O	X	X	X	X	O	사역자	X	X	X
이윤기 1989	학원사	O	O	O	X	X	O	X (작가)	O	X	X

17) 번역본에 번역자 약력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기관에서 번역한 경우는 'X(기타)'로 표시했다.

표 7

발신자 페리텍스트: 1990년대

기본 정보		저자	출판사				번역자				제삼자
번역자 (연도)	출판사	서문	삽화	성구	해설	지본 제시	표지 역자명	번역자 약력	역자 글	번역 관련	추천글
이병준 1990	고려 서원	O	X	O	O	O	O	교육자	O	O	X
박찬일 1992	기독교 태인 문화사	X	X	O	X	X	O	사역자	O	X	X
박영호 1993	기독교 문서 선교회	O	O	O	O	X	O	사역자	X	X	X
홍미숙 1994	다모아	O	X	X	O	X	O	전문 번역가	O	X	O
윤경호 1995	나나	O	O	O	O	X	O	X	X	O	X
정승섭 1995	혜원 출판사	O	X	X	O	X	O	전문 번역가	X	X	X

표 8

발신자 페리텍스트: 2000년대

기본 정보		저자	출판사				번역자				제삼자
번역자 (연도)	출판사	서문	삽화	성구	해설	지본 제시	표지 역자명	번역자 약력	역자 글	번역 관련	추천글
황찬호 2001	서울대 출판부	O	O	O	O	O	O	교육자	O	O	X
여성삼 2002	낮은 마음	O	O	O	O	X	O	사역자	X	X	X
마영래 2004	SFC	X	X	X	X	O	O	사역자	X	X	X
김강 2006	서해 문집	O	O	O	O	O	O	X (사역자)	O	O	X
이동진 2007	해누리 기획	O	O	O	O	X	O	기타	X	X	X
배응준 2007	규장	X	O	X	O	O	속지	전문 번역가	X	X	X
조은화 2007	생명의 말씀사	X	O	O	O	X	O	X	X	X	O
허미순 2007	씨뿌리 는사람	X	O	O	O	X	O	사역자	X	O	X

표 9

발신자 페리텍스트: 2010년대

기본 정보		저자	출판사				번역자				제삼자
번역자 (연도)	출판사	서문	삽화	성구	해설	지본 제시	표지 역자명	번역자 약력	역자 글	번역 관련	추천글
이동일 2010	열린 책들	O	X	O	X	O	O	교육자	O	X	X
최종훈 2011	포이 에마	O	O	O	O	O	O	전문 번역가	X	X	O
강경애 2012	동서 문화사	O	O	O	O	X	O	작가	X	X	X
신선명 2012	아침영 성지도 연구원	O	O	O	O	X	O	사역자	X	X	X
이선숙 2012	프리 셋트	X	X	O	O	X	O	X	X	X	X
김민지 2013	미르북 컴퍼니	X	X	O	O	X	O	전문 번역가	X	X	X
유종남 2019	선한 창지기	O	O	O	X	X	O	작가	X	X	X
정성목 2019	두란노	O	O	O	O	O	O	전문 번역가	X	X	O

표 10

발신자 페리텍스트: 2020년대

기본 정보		저자	출판사				번역자				제삼자
번역자 (연도)	출판사	서문	삽화	성구	해설	지본 제시	표지 역자명	번역자 약력	역자 글	번역 관련	추천글
정탁애 2020	을유 문화사	O	X	X	O	O	O	교육자	O	O	X
김진운 2020	미스바 박스	O	O	O	X	X	O	교육자	X	X	O
신현호 2023	익투스	O	O	O	O	O	O	교육자	O	O	X
오현미 2024	CUP	O	O	O	O	O	O	전문 번역가	X	X	O

### 저자 페리텍스트

저자 서문은 전체의 2/3, 즉 대다수의 번역본에 포함되어 있다. 저자 서문이 없는 번역본은 주로 1970~1980년대 출간되었거나 현대어로 된 번역본

에 해당한다. 특히 현대어 번역본의 경우 전체 9종 가운데 저자 서문이 없는 경우가 5종으로 절반을 넘는다. 현대어 번역본은 원작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내용에 있어 상당 부분 변화를 준 번역본도 있고(마영례, 2004), 원작의 목차나 레이아웃을 엄격히 따르지 않은 새로운 판(edition)으로 만든 번역본도 있어(배응준, 2007 등),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원작 저자의 서문을 넣어야 한다고 보지 않은 것 같다.

#### 편집자(출판사) 페리텍스트

삽화와 성구는 번역의 원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삽화는 은유와 우화로 이루어진 텍스트에 시각적인 장치를 부여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며, 성구는 『천로역정』의 내용이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삽화는 전체 번역본 중 66%, 즉 2/3가량의 번역본에서 사용하고 있고, 성구는 이보다 많은 88%에서 사용하고 있다. 성구의 경우 본문 내에 포함시키지 않고 미주 형태로 바꾼 경우도 한두 종 존재한다(정덕애, 2020 등). 다만, 삽화와 성구의 번역본 포함 여부는 번역본 출간 연대나 현대어 번역 여부 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로역정』 작품 해설이나 번역의 생애, 연보는 주로 출판사에서 담당했다. 출판사 페리텍스트에 해당하는 번역본은 전체 48종에서 절반에 해당하며(24종, 50%), 번역자 페리텍스트에 해당하는 번역본은 8종(16.7%)에 불과하다. 즉, 일반적으로 번역자 페리텍스트에 포함되는 작품 해설이나 연보가(박선희, 2015, p. 26) 『천로역정』 번역본에서는 출판사에서 주로 담당하여, 출판사 페리텍스트로 구분된다. 이러한 현상이 『천로역정』 번역본에서만 나타나는 것인지 다른 번역본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작품 해설이나 연보가 아예 없는 번역본도 14종(29%) 존재하는데, 1980년대까지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그 외 제삼자 페리텍스트로 분류되는 경우도 2종(4%) 있다.

출판사 페리텍스트에서 살펴볼 마지막 항목은 번역본의 저본을 밝혔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로역정』은 수많은 영문 판본이 존재한다. 어떤 판본을 저본으로 사용했는지는 “번역 자세가 얼마만큼 엄밀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조경덕과 최

경희, 2025, p. 94). 그런데, 이 글에서는 저본을 밝혔는지 여부를 번역자의 페리텍스트가 아닌 출판사의 페리텍스트로 분류했다. 전자보다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번역자가 밝힌 경우는 5종이고(이현주, 1976; 주요섭, 1963; 황찬호, 2001 등), 출판사에서 밝힌 경우는 7종이다(이병준, 1990<sup>18</sup>); 정성묵, 2019; 최종훈, 2011 등). 연대별로 보면, 저본을 밝힌 13종의 대다수가 2000년대 이후에 그러했다. 1990년대까지 저본을 밝힌 번역본은 소수(3종)에 그쳤다.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현대로 올수록 저본 제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후 발간된 현대어본 중 새 영문판본을 저본으로 사용한 경우(3종)도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여전히 2000년대 이후에도 저본을 밝힌 번역본은 전체 번역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번역자 페리텍스트

번역자 페리텍스트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책 표지에 번역자명 표기 여부, 번역자 프로필, 역자 서문을 비롯한 역자의 글 그리고 번역에 대한 내용 포함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대부분의 번역본 표지에 번역자의 이름이 표기되었다. 1종만 예외인데(배웅준, 2007) 표지에 원작자 존번연, 새 영문판 편집자명, 일러스트 명이 표기되어 있다. 다만, 속지에는 번역자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번역본에 저자명과 함께 번역자명도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번역자 프로필은 본성적 특성(직업)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로필이 존재하지 않는 번역본이 개일 역을 비롯하여 14종에 이르고(29.2%) 이 중 다수(12종)가 1980년대까지 출간된 번역본이다.<sup>19</sup> 이후 1990년대부터 대부분의 번역본에 번역자 프로필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 번역자 가시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번역자 가시성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로 역자의 글과 번역 관련 내용의 유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자의 글이 포함된 번역본과 그렇지

18) 다만, 이 경우는 저본을 발간한 출판사와 편집자명은 속지에 표기되어 있는데 출간 연도는 보이지 않는다.

19) 이 중에서 2종은 기관에서 발간한 번역본이다(시사영어사 편집국, 1986; 한국학 문헌연구소, 1979).

않은 번역본은 25종 대 23종으로 대략 반반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역자 서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간단한 작품 해설이나 존 번역의 생애를 서문의 일부로 다루고 있는 경우도 소수 존재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대로 작품 해설은 주로 출판사에서 담당했다. 역자 해설이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으나(이동일, 2010; 정덕애, 2020) 이러한 경우 역자 서문은 따로 없었다. 즉, 역자의 글은 역자 서문의 형태가 일반적이며 역자 서문과 역자 해설이 모두 포함된 번역본은 없었다.

번역 관련 내용은 번역본 발간 이유를 기술하거나 번역 전략이나 번역을 할 때 역점을 둔 점 등을 서술한 내용을 가리킨다. 번역 관련 내용은 역자의 글보다 더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48종에서 번역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는 17종이었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31종으로 전체 번역본 중 1/3에서만 번역 관련 내용이 있었다. 더욱이 17종 중에서 3종은 번역자가 쓴 내용이 아니고 출판사 서문(윤경호, 1995; 허미순, 2007<sup>20</sup>)이나 추천사(유성덕, 1987)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14종에서만 번역자가 작성했다는 것이다. 특이할 만한 점은, 번역 관련 내용의 경우 게일 역, 오천영 역, 김동순 역이나 주요섭 역과 같은 초기 번역본에는 번역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초기 번역본에는 번역 방식이나 전략에 대한 소회를 밝힐 당위성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는 상당히 줄었다. 특히 현대어 번역의 경우 번역자 페리텍스트로서 번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번역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번역본, 특히 초기 번역본을 통해 번역에 대한 내용이 이미 알려져서 현대에 올수록 그 필요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고, 또는 번역에 대한 내용을 번역자 페리텍스트로서 추가할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본다.

### 제삼자 페리텍스트

제삼자 페리텍스트는 총 9종(19%)에서 조사되었다. 추천의 글이 5종이고(이문숙, 1986; 정성목, 2019 등), 서문(머리말 포함)이 3종(최종훈, 2011<sup>21</sup>)

20) 이들 2종은 역자의 글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1) 최종훈 역(2011)에는 영문판 추천의 글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 파라텍스트 분석이 저자 서문을 제외하고는 번역본 페리텍스트로 제한하고 있어 이곳에

등), 그리고 작품 해설이 3종(조은화, 2007 등)이다. 이 중에서 추천의 글과 작품 해설 등 2건이 모두 포함된 번역본이 2종 있었다(유성덕, 1987; 오현미, 2024).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제삼자 페리텍스트가 포함된 번역본이 20% 이하로 상당히 적었다. 또한 제삼자 페리텍스트의 대표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는 추천의 글은 5종으로 그 수가 의외로 적고 서문이나 작품 해설은 6종으로 더 많았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추천의 글에 번역에 대한 언급이 있는 번역본이 있었는데(유성덕, 1987) 같은 번역본 역자 서문에는 번역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번역자 페리텍스트에 들어갈 번역에 대한 언급이 제삼자 페리텍스트에 포함된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의 언급을 통하여 번역본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 6.2.3 파라텍스트 분석 요약 및 번역자 가시성

파라텍스트 분석을 통해, 본성적인 특성(번역가의 직업)을 비롯하여 화용론적 특성(발신자), 특히 번역자 페리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작품 해설, 저본 제시, 표지 역자명, 번역자 약력, 역자의 글, 번역 관련 내용 등은 번역자 페리텍스트로 분류된다. 이들 6가지 항목 중 표지 역자명의 표기는 거의 모든 『천로역정』 번역본에 포함되어 있다. 작품 해설과 번역자 약력도 번역본의 약 2/3에서 찾아볼 수 있어 이 두 항목도 비교적 다수의 번역본에 포함되어 있다. 1990년대 이후로 수치가 개선된 결과다. 그런데, 좀 더 본격적인 번역자 페리텍스트로 볼 수 있는 역자 글이나 번역에 대한 내용 및 저본 확인에 대한 부분은 상황이 다르다. 역자 글은 전체 48종 중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고, 번역에 대한 내용과 저본에 대한 부분은 각각 29.2%와 27.1%로 상당히 낮다. 작품 해설과 번역자 약력과 달리, 역자 글과 번역에 대한 내용 등은 시간이 흘러도 수치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진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출간된 번역본 20종에서 역자 글이 들어 있는 번역본과 번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번역본은 둘 다 7.5%에 불과하여 오히려 수치가 더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표 8-10> 참고).<sup>22)</sup>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번역자 페리텍스트로 분류되는 작품 해설,

추가하지 않았다.

22) 다만, 저본 확인의 경우는 50%로 개선되었는데,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출간

작가 생애, 연보(박선희, 2015, p. 26)가 『천로역정』 번역본에서는 상당 부분 출판사와 제삼자와 분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작품 해설과 저본 확인은 주로 출판사 페리텍스트에서 찾을 수 있었고, 번역에 대한 내용도 출판사 또는 제삼자가 담당하는 경우도 일부 목격되는 등 전체적으로 번역자의 역할이 번역자에게만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희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상당한 양의 『천로역정』 번역본이 지속적으로 출간되었지만 번역자 페리텍스트에서 번역자의 역할, 즉 번역자의 가시성이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 낮으며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7. 결론

이 글에서는 존 번연의 『The Pilgrim's Progress』 한국어 번역본을 연대별로 살펴보고 파라텍스트 이론 중 일부를 적용하여 번역자 가시성 측면에서 분석했다. 성인 대상 번역본의 경우 출간 횟수를 기준으로 1980년대를 정점으로 현재까지 그 수가 크게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번역본이 나오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 현대어 번역본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번역본이 출간되는 이유는 『천로역정』이 지닌 탁월한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를 후대에 전하는 한편, 새 시대 새 번역본을 통해 신앙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현대어 번역본을 포함하여 새로운 번역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

파라텍스트 이론을 적용한 분석에서는 번역자 가시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페리텍스트를 대상으로 화용론적 특성(발신자)을 분석한 결과, 번역자 약력을 포함하고 있는 번역본의 수가 늘어나는 등 번역자 가시성이 대체로 1980년대를 지나 높아지기 시작했으나 번역자 글이나 번역에 대한 내용 포함 여부 및 번역본의 저본 확인 등을 포함하고 있는 번역본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번역자 페리텍스트로 분류되

는 작품 해설이나 작가 생애, 연보를 상당 부분 출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번역에 대한 내용이나 저본 확인 등 번역자 페리텍스트로 분류되어야 할 내용이 출판사 및 제삼자 페리텍스트에 담겨 있어 번역자의 역할이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글은 존 번연의 『The Pilgrim's Progress』 한국어 번역본 현황을 첫 번역부터 최근 번역본까지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각 번역본에 나타난 페리텍스트 분석을 통한 번역자 가시성 확인에도 의미를 둘 수 있겠다. 다만, 유사 텍스트나 장르에 속한 번역본과의 비교 없이 단순 확인한 것은 한계점이다. 이외에도 문학적, 신학적 관점과 같은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지 않았는데 그 범위가 방대하기도 하고 저자의 능력 밖이라 이 연구는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데 만족하기로 한다. 후속 연구로는 문학작품 및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통시적 연구, 일반 번역본과 현대어 번역본 간 파라텍스트 비교, 페리텍스트 항목별(예. 번역 전략) 상세 연구, 번역자별 다양한 판본을 포함한 페리텍스트 비교 등이 있겠다.

## 참고문헌

- 게일, 제임스. (1895). 턴로력딩. 삼문출판사.  
국립중앙도서관. (n.d.). 천로역정. 국립중앙도서관. 2025. 2. 14. 검색.  
<https://www.nl.go.kr/NL/contents/search.do?kwd=%EC%B2%9C%EB%A1%9C%EC%97%AD%EC%A0%95&insiteschStr=>  
김동순. (1954). 하늘 가는 길(天路歷程). 은총문화협회.  
김동연. (1998). 턴로력딩과 개화기 국어. 한국문화사.  
김민서, 김순영. (2019). 시대별로 살펴본 『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 원본 결텍스트와 번역본 결텍스트의 비교. 통번역학연구, 23(2), 23-48.  
김병철. (1998). 韓國現代翻譯文學史研究. 상. 을유문화사.  
김성은. (2009). 선교사 게일의 번역 문체에 관하여-『천로역정』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1, 202-205.  
김순미. (2013). 결텍스트를 통한 출판사의 문학번역 전략 홍보: 위대한 개츠

- 비 번역방법 논란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1(3), 5-27.
- 김순영. (2019). 추리소설에서 결텍스트의 역할: 엘러리 퀸의 『X의 비극』 영  
한번역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3), 233-245.
- 김영신. (2012). 역자후기를 통해 본 번역사의 자기 이미지 연구. 번역학연  
구, 13(4), 7-27.
- 마승혜. (2019).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한 주변텍스트 활용 방안 모색 - 번역  
서 및 비번역서 사례 비교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7(1), 161-183.
- 박선희. (2015). 번역문의 결텍스트: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에 대한 정의.  
번역학연구, 16(1), 7-33.
- 박윤후, 이상빈. (2023). 페리텍스트(peritext)의 통시적 변화 고찰. 번역서 제2  
의 성을 기반으로. 통번역학연구, 27(2), 47-69.
- 배은진. (2014). 천로역정의 시대별 번역투 양상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오승일, 오지석, 오순방. (2018). The Pilgrim's Progress의 증역본과 한역본의  
판본 및 한국전파와 영향 고찰. 중국소설논총, 56, 339-340.
- 오천영. (1939). 천로역정. 조선기독교서회.
- 원창엽. (1990). 천로역정. 지성출판사.
- 유성덕. (1987). 천로역정.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유한내. (2013). 번역사의 사회적 가시성 연구: 정영목 저 <<로드>>의 후텍  
스트 분석. 통번역학연구, 17(4), 101-119.
- 이강선. (2016). 그림책의 파라텍스트에 나타난 번역전략: 『코끼리 아이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5), 175-200.
- 이선우. (2023). 시각분법에 기반한 한국문학작품 영어 번역서 표지 분석 연  
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윤기. (1989). 천로역정. 학원사.
- 이지영. (2016). 문학번역의 결텍스트 리프레이밍: 소설 『허삼관매혈기』를 중  
심으로. 번역학연구, 17(5), 201-232.
- 이현주. (1976). 천로역정. 범우사.
- 이혜승. (2014). 번역문 파라텍스트의 유형과 역할 고찰—『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2(3), 181-201.

- 전현주. (2009). 역자의 (불)가시성 —역자 후기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2(2), 211-229.
- 정덕애. (2020). 『천로역정』. 을유문화사.
- 정성목. (2019). 천로역정. 두란노.
- 조경덕과 최경희. (2025). The Pilgrim's Progress의 한국어 번역 양상 연구. 인명 지명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9(3), 85-107.
- 최인숙. (2024). The Pilgrim's Progress의 韓譯本과 中譯本에 나타난 비유체 (vehicle) 번역 양상 고찰. 통번역학연구, 28(4), 79-113.
- 최종훈. (2011). 천로역정. 포이에마.
- 한국학중앙연구원. (n.d.). 번역문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5. 7. 1. 검색,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2523>
- Batchelor, K. (2018). *Translation and paratext*. Routledge.
- British Library. (n.d.). The Pilgrim's Progress. British Library. Retrieved July 1, 2025, from [https://bl01.primo.exlibrisgroup.com/discovery/search?query=any,contains,The%20Pilgrim%27s%20progress&tab=LibraryCatalog&search\\_scope=Not\\_BL\\_Suppress&vid=44BL\\_INST:BLL01&lang=en&offset=0](https://bl01.primo.exlibrisgroup.com/discovery/search?query=any,contains,The%20Pilgrim%27s%20progress&tab=LibraryCatalog&search_scope=Not_BL_Suppress&vid=44BL_INST:BLL01&lang=en&offset=0)
- Deane-Cox, S. (2014). *Retranslation: Translation, literature and reinterpretation*. Bloomsbury.
- Dictionary Media Group. (n.d.). para. Dictionary.com dictionary. Retrieved September 12, 2025, from <https://www.dictionary.com/browse/para>
- Genette, G. (1997). *Paratext: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J. E. Lewin, Tr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7)
- Homer. B. (2009). 베리 호너 목사의 『천로역정』 명강의 (신호섭 역). 부흥과 개혁사. (Original work published 2001)
- Keeble, N. H. (1988). Of Him thousands daily sing and talk: Bunyan and his reputation. In N. H. Keeble (Ed.), *John Bunyan: Conventicle and parnassus* (pp. 241-264). Oxford University Press.
- Pooley, R. (2008). *John Bunyan. The pilgrim's progress. From this world to that which is to come. Edited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Roger*

*Pooley*. Penguin Books.

Sharrock, R. (1967). *The Pilgrim's Progress*. Penguin Books.

Thomas, J. (1992). *Pilgrim's progress in today's English*. Moody Publishers.

(Original work published 1964)

## **A diachronic survey of Korean translations of *The Pilgrim's Progress* and their translators' visibility**

**Gyung Hee Choi** (gchoi@ptu.ac.kr)

Department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Pyeongtaek University

### **Abstract**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John Bunyan's *The Pilgrim's Progress* in 1895, a substantial number of translations have appeared over approximately 130 years. While this long translation history has attracted scholarly interest, existing studies have generally focused on a small group of early translations and translators. This study seeks to address this gap by conducting a diachronic survey of all available Korean translations published to date. It also briefly explores translator visibility through Gérard Genette's theory of paratext. The dataset consists of 175 translations list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hich are used to produce diachronic "snapshots" of changing translation practices. Of these, 111 translations for adult readers were produced by 48 translators; for each translator, their earliest translation was selected for closer analysis of visibility. The findings suggest that (1) Korean translations, which peaked in the 1980s, are unlikely to decline in number, partly due to the ongoing production of modernized versions, and (2) translators tend to be less visible than expected, because peritextual elements that would highlight their role have increasingly been taken over by editors and other third parties.

**Keywords:** Bunyan's *The Pilgrim's Progress*; Korean translation; diachronic survey; paratext; translator's visibility

**키워드:** 번연의 『천로역정』, 한국어 번역, 통시적 조사, 파라텍스트, 번역자 가시성

최경희(<https://orcid.org/0000-0001-2546-3266>)  
평택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통번역학과 부교수  
gchoi@ptu.ac.kr

논문 투고일: 2025년 11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11월 30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12월 8일  
게재 확정일: 2025년 12월 16일